

교황청 꿈나무

2018 7+8 / 제281호



성녀 세라피나

(1238~1253년, 축일 3월 12일)



‘피나’라고도 하는 세라피나는 1238년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10세 때에 그녀는 온몸이 마비되는 중병을 앓게 되었어요. 얼굴은 기형적으로 변했고, 계속되는 진통 때문에 그녀는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세라피나는 몇 년 동안 한자리에 누워서 고통을 겪었지만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나의 상처보다 예수님의 상처가 더 마음 아프다.”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아프고 난 후에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 그녀는 버려진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세라피나는 그레고리오 1세 성인을 특별히 공경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참는 데 필요한 인내를 얻도록 성인에게 기도했어요. 그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8일 전에 그레고리오 1세 성인의 발현을 보았어요. 성인은 “사랑하는 자녀여, 나의 축일 날에 하느님께서 너에게 쉼을 주실 것이다.”라는 말을 세라피나에게 남겼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그레고리오 1세 성인의 축일이었던 1253년 3월 12일에 15세의 어린 나이로 그녀는 세상을 떠났어요.

세라피나 성녀가 묻힌 무덤에서 하얀 제비꽃들이 자랐다는 전설이 있는데, 사람들은 성녀의 높은 성덕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지금도 성녀가 살던 산 지미냐노 마을에서는 3월에 피는 하얀 제비꽃을 ‘산타 피나(성녀 피나)’라고 불러요.



「세라피나 성녀」 베노초 고촐리(1465)



「피나 성녀의 장례식」 도메니코 기를란다요(1473~75)

말씀을 생각해요

1. 세라피나 성녀가 살았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 ① 그리스 ② 프랑스 ③ 이탈리아 ④ 스페인

2. 세라피나 성녀의 축일은 언제일까요?

- ① 3월 12일 ② 9월 3일 ③ 7월 4일 ④ 8월 20일

3. 세라피나 성녀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의 상처보다 000의 상처가 더 마음 아프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동그라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 ① 하느님 ② 예수님 ③ 성모님 ④ 신부님

말씀과 놀아요

그림에서 서로 다른 다섯 곳을 찾아봅시다!



도메니코 기를란다오, 「피나 성녀의 죽음 예고」, 1473~75

※ 정답은 7월 31일까지 보내 주세요. 정답을 맞힌 어린이 가운데 선착순 14명에게는 5천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제280호 퀴즈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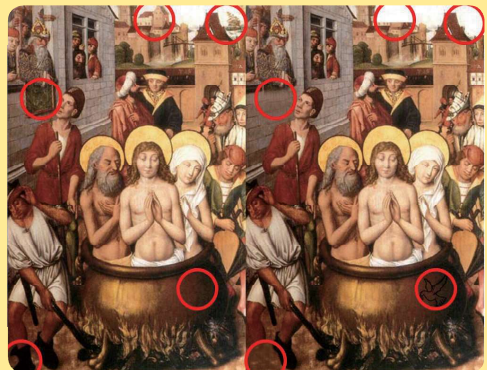
♥ 말씀을 생각해요

1. ① 2. ④ 3. ②

♥ 말씀과 놀아요

[제280호 퀴즈 정답자] 축하합니다!

대전교구 당진본당의 윤요한 어린이, 수원교구 여주본당의 김민준 어린이, 하비에르 국제학교의 박채환, 심은찬, 아키오, 윤주원, 전하트, 조수리, 카롱 소피 어린이가 정답을 보냈습니다.



신부님 덕분에

본당 활동이 재밌어졌어요!

김대진 대전 안드레아
초등학교 5학년
대구대교구 황금본당

우리 본당 신부님이셨던 이창수 야고보 신부님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야고보 신부님은 미사를 정말 재미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강론 시간에는 신부님의 질문에 대답하면 문화상품권을 주거나 강론을 일찍 끝내 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과 세례명을 모두 외우셔서 미사 시간에 빠지면 귀신같이 알아내세요. 성체를 모실 때에도 신부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성체를 주세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진답니다.

야고보 신부님은 우리를 데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셨어요. 올릉도와 일본 그리고 필리핀도 함께 갔는데, 신부님과 함께여서 더욱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어요. 그리고 설날이 되면 신부님께 세



배를 하러 사제관으로 찾아가요. 그러면 신부님이 우리에게 세뱃돈도 주셨어요. 야고보 신부님이 오시고 나서 저는 가톨릭스카우트 활동도 시작했어요. 스카우트 활동을 하면서 본당 활동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종종 새벽 미사 복사 당번이 되면 하루에 3번씩이나 미사를 집전하시는 신부님이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만약 제가 신부님이었다면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 미사를 집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야고보 신부님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야고보 신부님은 대구 평화방송에 계시지만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이창수 야고보 신부님 사랑해요. 오래토록 건강하세요!



우리들의 이름과 세례명을
모두 외우셔서
미사 시간에 빠지면
귀신같이 알아내세요.
성체를 모실 때에도
신부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성체를 주세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진답니다.



새 환경에서 새 꿈을

김현수 에우제니아 수녀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회,
케냐 선교



따뜻한 운동복을 입고

꿈나무 친구들, 테니스와 아이작 소식
이 다시 찾아왔어요. 지난번 소식에서 두 형제
가 새로운 학교로 전학하게 되었다는 말 기억
하나요? 테니스와 아이작은 올해 1월 3일부터
카멜라이트 수도회가 운영하는 그리스도 왕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개학을 앞두고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
며 형제는 마음이 들떠 보였어요. 교복과 학
용품들을 구입하고,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매트
리스와 개인 물품들 그리고 여벌도 장만했어
요. 학교로 떠나기 전에 꿈나무 친구들의 도움
으로 장만한 물품들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들과 함께(왼쪽 아이작, 오른쪽 테니스)

데니스와 아이작이 학교에 다닌 지 2주가 지났을 때 처음으로 형제를 보러 학교에 찾아갔어요. 형제는 짧은 시간에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교실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사진도 찍어 주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망고가 제철이라 망고를 하나씩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쉬는 시간에 형제는 넓은 풀밭에서 축구를 하면서 신나게 놀았어요. 해가 지면 쌀쌀해지기 때문에 따뜻한 운동복으로 갈아입는다고 해요. 데니스와 아이작이 학교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더욱 쾌적해진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데니스와 아이작이 앞으로 보여 줄 모습도 기대가 돼요. 이렇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형제가 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더없이 기쁘고 행복한 나날이에요.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왼쪽 아이작, 오른쪽 데니스)



망고 먹는 날(왼쪽부터 아이작, 데니스)

어린이 글 모집

교황청 어린이전교회에서 꿈나무 친구들의 글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주제는 '주일 학교'예요.

주일 학교를 하면서 재밌었던 일에 대한 글이나 좋아하는 주일 학교 선생님을 소개하는 글도 좋아요.

보낼 곳

전자 우편 _ pmsk@pmsk.net
(04918)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 (중곡동)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분량

200자 원고지 기준 5매, 글과 함께 실릴 본인 사진도 함께 보내 주세요.

※ 원고를 보낼 때, 이름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어 주세요.

글을 보내 준 어린이에게는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꿈나무 소식



교황님 세계 선교 기도 지향

7월 사제와 사목 직무

사목 직무를 수행하며 피로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제들이 주님과의 친교와 형제 사제들과의 우정에서 도움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꿈나무 친구들을 위한 미사 봉헌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장 김준철
신부님께서는
꿈나무 친구들이

7월에는 무더위로 인한 어려움을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잘 봉헌할 수 있도록,

8월에는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아 생활에서 작은 불편함을 실천하여 환경 수호에 이바지하도록 은총을 청하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교황청 어린이전교회

Pontifical Society of the Holy Childhood in Korea

교황청 어린이전교회는 어린이를 돕는 어린이들의 모임입니다.

주소 | (04918)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중곡동)

웹사이트 | www.pmsk.net

전화 | (02)2268-7103, 460-7608-11

팩스 | (02)2268-7104

이메일 | pmsk@pmsk.net

1

하나,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도입 안내

2018년도 납부 기부금부터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에요.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와 예금주가 동일하여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기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친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될 예정이며, 영수증을 처음 발급받을 친구는 기구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제공을 동의한 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2

둘, 새로운 친구를 환영합니다!

2018년 3~4월에는 인천교구 청학동본당 복사단, 수원교구 대천동본당의 송상윤, 송채원, 이윤지, 장혜은, 조나영 어린이, 동탄영천동본당 유지호 어린이, 안성본당 이윤성 어린이, 청주교구 복대동본당 윤서연, 윤서은 어린이가 어린이전교회 식구가 되었어요.

3

셋, 교황청 어린이전교회 회비 보고

친구들이 2018년 3~4월에 보내 준 회비는 총 1,385,320원이에요.

▶ 개인 회원 회비는 총 922,000원으로 강민건 10,000원, 강민서 10,000원, 강민솔 10,000원, 강민웅 10,000원, 고예준 10,000원, 공연수 2,000원, 권나영 30,000원, 김경민 30,000원, 김동현 10,000원, 김민준 10,000원, 김민혜 10,000원, 김범준 30,000원, 김선미 4,000원, 김소희 6,000원, 김시은 2,000원, 김연아 10,000원, 김인규 5,000원, 김재민 10,000원, 김채은 5,000원, 김하연 60,000원, 김하은 10,000원, 김학선 4,000원, 류인권 4,000원, 문지수 20,000원, 문지희 20,000원, 박세현 21,000원, 박한진 6,000원, 방성은 10,000원, 서동욱 10,000원, 서동현 10,000원, 서지민 4,000원, 소준명 5,000원, 손범준 10,000원, 손수호 4,000원, 손아윤 10,000원, 손온비 10,000원, 손태연 10,000원, 신서윤 20,000원, 신서의 2,000원, 심소현 20,000원, 심윤하 20,000원, 심현성 20,000원, 안서진 20,000원, 윤요한 10,000원, 은서현 10,000원, 은채현 10,000원, 이동률 10,000원, 이상인 10,000원, 이상준 6,000원, 이성규 20,000원, 이소은 10,000원, 이유민 20,000원, 이채민 10,000원, 임소영 4,000원, 임수빈 10,000원, 임채민 10,000원, 임하은 10,000원, 장서윤 8,000원, 장채윤 8,000원, 정도림 10,000원, 정서진 6,000원, 정소미 2,000원, 정유준 20,000원, 정주영 20,000원, 정주는 20,000원, 진하람 6,000원, 진하울 12,000원, 최아영 10,000원, 최윤형 40,000원, 최은지 10,000원, 최이아 40,000원, 한호재 10,000원, 홍승희 6,000원을 보내 주었어요.

▶ 단체 회원 회비는 총 463,320원으로 인천교구 서운동본당 60,000원, 수원교구 남양본당 복사단 187,000원, 대천동본당 계약의 궤 브레시디움 196,320원, 전주교구 전동본당 20,000원을 보내 주었어요.

4

넷, 회비를 입금해 주세요.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해 정성껏 모은 회비를 이곳으로 보내 주세요.

국민은행 045-01-0155-088

우체국 012823-02-225971

우리은행 1005-801-858453

(예금주: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농협 351-0097-3281-03

신한은행 100-027-267395

하나은행 388-910003-06104